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

황의서(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경제/경영 2-3)

I. 서론

막스 베버는 불교, 힌두교, 유교, 유대교, 개신교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종교에 기초한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경제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서방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게 된 이유로 청교도 윤리를 언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 건설에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숙한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교도적 직업윤리관은 직업의 귀천을 없애는 동시에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거룩한 행위로 승화시켰다는 것이다. 청교도 정신은 경제생활을 신앙생활의 일부로 이해하고, 부의 축적을 축복된 삶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베버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유발시켰다. 쾰바르트는 자본주의를 기독교 정신 보다는 유대정신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베버의 청교도 윤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자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동양의 경제발전은 앞으로 종교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도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루터, 칼빈, 웨슬리가 가지는 경제윤리에 대한 차이점들을 살펴보고, 청교도 경제윤리를 획일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베버가 소홀히 취급한 점들을 밝히고, 각 종교 개혁가들이 가지는 경제윤리의 특성들을 드러내고,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경제윤리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II. 경제윤리의 비교

1. 시대적 배경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 1517년경 독일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독일 황제는 터키와의 갈등 속에서 국제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독일 정치 구도가 황제파와 비 황제파로 분리되어가고, 비 황제파의 수장격인 사제왕이 루터를 옹호하면서 교황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제와 대립의 각을 세우는 전략에 휘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즉 교황을 비판하는 루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경우 독일 정치구도가 분열될 수 있음을 독일 황제는 인식하고 있었다.¹⁾

경제적으로는 1498년 신대륙 발견 이후 한사동맹은 약화되어 갔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환경은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 특히 유럽경제가 농업 중심에서 신대륙과의 상업 중심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독일 경제는 심한 침체에 빠져 들기 시작한 것이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루터의 주장은 어

1) 실제로 그 후에 30년 종교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갈등이 전쟁 원인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황제파와 비황제파 군주들 간의 세력 타툼이 표면화 된 것이기도 하다.

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것이다.

칼빈은 루터보다 18년 늦은 1535년 기독교강요를 발표하고,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대륙이 발견되고, 금과 은이 대륙으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대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금과 은이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오고, 화폐경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네바 시는 인플레이션, 빈부격차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부각되어졌다. 상업의 발달은 돈의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었고, 칼빈은 농촌경제와는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경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다듬어 갔다.

웨슬리는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와 동시대 인물이고, 루터와 칼빈보다 약 20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다.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을 치룬 이후 신교와 구교간의 갈등을 종결하고,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상을 지배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신대륙과 아프리카로 확장해 가는 영국의 지배력을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 식민지를 확장해가는 영국 경제는 그칠 줄 모르는 호황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경제적 번영에 필요한 요소로 자유를 인정하고,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식민지와 자유무역을 보장하였다. 경제부흥과 함께 개인 자유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웨슬리는 자유와 정부의 통치기능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당시 개인자유주의를 기초로 팽창해가던 경제사회 속에서 웨슬리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의 약점들을 보완하고,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였다. 경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동가보다는 조언자의 역할에 만족하였다(McArthur, 1936: 35). 특히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에 영국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제시하려고 웨슬리는 노력하였다.

세 사람 모두다 경제적 변화기에 종교개혁을 주장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루터는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칼빈과 웨슬리는 경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활동했다. 칼빈은 도시 상업의 발달을 경험했고, 웨슬리는 상업자본이 축적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에 활동하였다.

2. 노동윤리

루터는 일을 통하여 십계명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은 주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것이다. 예로, 첫 번째 계명은 일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으로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 계명은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가를 나타낸다.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마치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오직 건강만을 추구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의 신성을 강조한 루터는 모든 직업을 주님을 향한 성직으로 이해한다. 성직자나 일반 직장인이거나, 세상의 왕이나, 행정가나 기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고, 차별이 없다.

노동은 이웃사랑의 실천적 도구로 이해 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웃사랑도 실천된다는 것이다(Luthers, 1883: 533). 예로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목사가 설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일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돈을 벌기 보다는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있다고 그는 보고 있다(Schoeps, 1977: 261).

칼빈 역시 노동에 대한 관점은 루터와 유사하고, 직업(Beruf)을 주님의 부르심(Berufen)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하였다(Calvin, 1931: 181). 주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과 직업에 충실한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칼빈은 노동을 성화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과 만나 뵈를 경험하게 되면, 노동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노동이 회복되어 진다. 여기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지, 인간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노력에 대한 보상은 아닌 것이다(MacGrath, 1990: 239).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준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상태는 안식을 취하는 상태와도 같다. 노동은 다시금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만들어 간다.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죄에 속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특히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적당히 보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Bieler, 1964: 48).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칼빈은 이를 실천하려고 했다. 제네바 도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구빈정책을 펼쳤고, 도시에는 유럽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Graham, 1971: 82). 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칼빈은 현대 사회정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칼빈은 좋은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본다. 선하고 좋다는 가치관을 그는 사회적 관점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루터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루터는 좋은 일을 십계명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려고 했다면, 칼빈은 좋은 일을 사회적 영향력에 기초하여 판단하려한다.

칼빈은 임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노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역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임금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증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임금은 노동자나 고용주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인간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질 수 있는 공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정한 임금은 시장가격과 일치하거나 국가가 정하는 수준이 아닐 수 있고, 고용자와 노동자의 상황을 보시는 주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한편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칼빈은 고용계약을 권장한다(Bieler, 1964: 51).

웨슬리는 노동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을 수입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추구하라고 주장한다(Wesley, 1850, 442). 그의 주장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꾸물거리지 말고, 반신반의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노동의 생산성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건강이 해롭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생명은 생계보다 중요하다. 마음과 육신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가능한 막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도박이나, 폭리, 비싼 이자 등은 사라져야 한다. 투기나 거짓, 속임수 등이 동원되는 직업 역시 거부되어야 하고, 밀수 등에 종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전당포 사업 역시 올바른 청지기의 사업이 아니라고 그는 본다. 다른 사람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낮은 가격에 파는 덤핑 행위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이나, 고통을 안겨주는 경제행위는 삼가야 한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올바른 경제행위 속에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아닌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행위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 보다 사업에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세상의 관심사에서 스스로를 멀리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공통점은 노동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즉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이고,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노동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다.

한편 시대적 차이가 노동에 대한 윤리적 이해에도 반영되고 있다. 루터는 노동 자체를 강조하는데, 칼빈은 노동 못지않게 공정한 임금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고, 웨슬리는 노동보다는 오히려 수입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의 윤리성을 평가하는데 루터는 노동의 동기를, 칼빈은 사회적 영향을, 웨슬리는 노동의 손익 계산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기를 강조하는 루터의 입장은 독일에서 칸트의 도덕 철학으로 계승 되어졌다. 반면에 노동의 결과를 강조하는 웨슬리의 입장은 당시 영국에서 벤담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직업의 종류에서도 루터는 거룩한 노동행위를 상업행위와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한 구분은 칼빈과 웨슬리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루터는 노동 중에서도 땀 흘리는 노동을 강조하는 반면 웨슬리는 정신적 노동이나, 서비스 등 모든 생산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의 현상과 작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면서 세 사람의 노동윤리도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3. 상업윤리

상업활동을 바라보는 루터의 관점은 복합적이다. 원론적으로 상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필요한 행위이고, 상업이라는 직업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상인들이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보는 것이다.

실제로 상인들은 자신들이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상품을 전부 사버리고, 물품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면 가격을 조정해서 비싸게 판매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려고 한다. 가능한 한 비싸게 팔겠다는 상인정신은 탐욕에 기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고, 강탈하는 것과 같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행위를 그는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열어 놓는 행위로 보았다.

상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이루어가는 농업이나 가축사육으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재산을 축적해 간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축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 푸거가는 일생동안 왕의 재산과 같은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또한 100 길더의 재산으로 일년에 20 길더의 이윤을 남겼다. 일 년에 20%의 이윤은 단순한 농업과 가축사육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 독점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상업활동이 도덕적이 되려면 “인간의 판매행위는 이웃을 향하여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양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버는 것보다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루어져야 한다(키어, 1991: 246)”. 상업이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가격을 바탕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정당한 가격을 능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정당한 가격의 수준이 무엇이고,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이다.

루터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정당한 가격과 정당한 이윤은 투자된 시간과 노동을 기초로 계산하면 되는데, 즉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노동으로 얻은 수입과 비교하면 된다는 것이다.(Luther. 1915: 17) 이는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계산이고, 각 직업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론이다. 투자한 노력과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하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에 기초하여 차별된 노력에 대한 차별된 보상을 정당화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가치에 기초한 차별적 보상을 용납하지만, 노동의 동기를 금욕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입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행위 자체를 루터는 비도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우리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노동하고 욕망을 참고 눌러야 한다(Kerr. 1943: 167)”라고 주장하면서,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상업사회를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올바른 상거래에 대한 루터의 4 가지 제안을 볼 때에도, 그의 주장들이 현실세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주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마태복음 5장 40절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재화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훔쳐가려고 하면 훔쳐가도록 놓아두라는 것이다.
- 2) 자신의 재화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무료로 주라는 것이다.
- 3) 재화를 빌려주는 것이다. 다시 돌려주면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단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라는 말씀에 기초한다. 무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다.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도로 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사람은 고

리대금업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이라는 것이다(장남준, 1973: 290).

4) 현금 내지는 물물교환을 기초로 매매하는 것이다. 매매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물건을 팔면서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외상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증인이 없고, 무상으로 대여하고, 현금에 기초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상거래로 인한 실패나 고뇌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상업윤리에 대한 루터의 주장은 유평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천국 모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의 주요 관점은 도덕적 상거래란 노동과 같이 그 동기가 이웃사랑에서 출발해서 이웃사랑의 열매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거래의 동기가 이웃사랑이 아닌 자신의 이윤추구라면 이는 제제의 대상이 된다. 제제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노동가치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의존하면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루터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상인들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어 했다. 더 나아가 상인들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장에서 불균형의 원인을 상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인도나 원거리에서 사치품들을 들여와서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품거래에서 가격 설정은 양심에 기초하기 보다는 욕심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착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기회로 삼는 상인을 루터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루터는 농업중심 사회를 기초로 한 경제윤리를 주장하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상업과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

칼빈은 상업행위를 분업에서 필요한 경제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분업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분업을 통하여 사람들은 서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경제행위는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상업은 서로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분업과 상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질서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연결해 주는 상업은 고통을 덜어주고,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인생이라는 선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데 상업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물질적 교류는 영적 교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물질적 교류가 활발하면, 영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활발한 영적 교류는 활발한 물질적 교류를 동반하는데, 그 중심에 상업이 있다(Bieler, 1964: 51). 16세기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를 방문한 사람들의 경험담은 다른 도시들보다 상업이 제네바에서는 활발했다고 증언한다. 거리마다 소상공인들이 붐비는 것이다(Graham, 1971: 77).

상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으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면, 상업은 그 본질에 변화가 발생한다. 욕심과 거짓이 상거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질서마저도 파괴시키려고 한다. 정직하지 못한 상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대한 공격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인간 사회는 붕괴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상업윤리의 붕괴는 상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곧 인류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은 상업윤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완벽

해 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상업윤리가 유지되도록 상거래를 관찰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업윤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직한 저울, 자, 계약서, 동전 등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칼빈은 필요한 상품의 온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독점을 살인과도 같은 것이라고 본다. 온전한 상거래를 방해하는 투기, 매점매석 과 같은 행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한다. 칼빈의 주장에 따라서 제네바 시는 당시 생필품에 속하는 와인, 빵, 고기 등에 대하여는 가격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들 생필품에 대한 투기와 매점 매석 행위는 단절되었다. 생필품의 가격에 대한 국가 통제는 루터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상업의 발전은 현실적으로 부의 편중, 가격의 담합과 인상 효과 등을 가져 왔지만, 상업의 본질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상업의 필요성과 도덕성을 인정한 칼빈의 종교개혁은 상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고, 정직과 신용이라는 상업윤리의 기초위에서만 상업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상업을 중시하는 국가이었고, 웨슬리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당시 영국의 철 생산은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 선박의 60%가 영국에 등재되고, 영국은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되어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Hobsbawm, 1975: 39) 이러한 상황에서 웨슬리는 상거래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경영인들의 교육 필요성을 깨닫고, 경영인들만을 위한 특별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영 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사업의 기독교적 운영방식에 대하여 웨슬리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상업과 경제가 사회의 기간이 되는 것을 깨달은 웨슬리는 기독교인들이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기를 원했다. 한편 부당한 상거래, 거짓이 동반된 경제행위, 덤핑행위, 밀수 등은 반대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이나 피해를 주는 상거래는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특히 노예무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노예해방 운동에 앞장섰다.

상업행위를 부정적으로 본 루터는 공정한 시장가격은 노동가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가치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칼빈과 웨슬리는 상업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단 독점이나 매점 매석행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웨슬리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4. 돈과 이자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돈이 돈을 만드는 것은 경제행위를 인위적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부는 사람들을 교만하고 게으르게 한다. 부는 오히려 배고픔을 야기시킨다(Demaray, 1989: 113)”. 하나님은 소와 양들을 통하여 우유와 치즈와 고기와 모피를 공급해주신다. 바다의 물고기, 나무의 열매, 밭의 작물, 땅 속의 지하자원들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돈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따라서 돈이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돈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돈은 참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돈이 많은 곳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고, 삶의 환경이 오히려 나빠진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이자 역시 루터는 부정적으로 보았다. 신명기 15장 7,8절은 가난한 자가 요구하면 그에게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 역시 원수에게 까지도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자 없이 주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이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자구매를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하는 사람이 없다(장남준, 1973: 312). 이자는 결국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자구매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자를 받는 부자가 이자로 인하여 부를 증대시키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기초한 재물은 공정한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자 수입을 루터는 매춘부의 수입이나, 도박의 수입과 같이 부당한 재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자가 다른 이자를 늘리는 물레방아식 재산 증식은 오로지 탐욕에 기초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그는 본다. 결국 이러한 탐욕에 기초한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거나, 국가가 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자를 정당화 시키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루터는 논박한다. 첫째는 기회비용이다. 대여한 재물로 이루었을 이익분의 상실이 있다는 것인데, 빌려주거나 줄 때에는 이미 이자나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즉 기회비용은 이론적인 것이지, 실제로 대여한 사람에게는 포기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이자가 세상에서 보편화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라고 말씀하신다.(눅6:35)

한편 예외적으로 사업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 즉 사망, 홍수, 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위험에 대비한 이자는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루터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 측면이지, 돈 장사 자체를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돈의 비생산성에 대한 이론은 중세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 주장은 이자금지법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칼빈이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자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가난한 자의 필요를 바탕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에 금지하고 있지만,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이자는 성경에서도 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다. 돈을 자신보다 더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주장한 돈의 비생산적 주장을 뒤집고, 돈이 가지는 생산적 측면을 칼빈은 강조했다. 이자를 금지할 경우, 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간에 차별이 사라진다고 보았다(Bieler, 1964: 57).

이자와 화폐에 대한 선형적 선악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주장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자는 것이고, 이는 공리주의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서 농장을 구매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나, 농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나 같을 수 있는데, 이를 도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Graham, 1971: 92).

칼빈은 이자를 정당화하였지만,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가난한 자에 대한 이자를 계속 금지하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를 탕감해주고, 과도한 이자를 법으로 금지하였다. 실제로 정당한 이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제네바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금지하였다.

부의 대한 관점에서 웨슬리는 루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부를 모으고, 축적하려는 노력을 인간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웨슬리는 주장한다. 적극적으로 부를 모을 것을 권한다. 부를 모으기 위한 축적 수단으로 그는 돈을 인정하고, 돈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루터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보았지만, 웨슬리는 돈이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Bebb, 1950: 108).

웨슬리는 돈을 생산적이거나,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은 옳고, 자신의 감정이나 비생산적 욕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잘 못된 것으로 본다. 돈을 다음 후손을 위하여 모아두거나, 사치적 생활을 위하여 쓰는 것은 잘 못된 행동이고, 부채를 갚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거나,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 하거나 하는 것은 올바르게 돈을 쓰는 것이다. 그는 돈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구분하려고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의 재물 축적과 관리는 바람직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은 부와 승진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옳바르지 않다. 또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으는 행동 보다는 절제를 알고,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 역시 죄가 되고, 사업 역시 과도한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할 것으로 염려될 경우, 자녀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산만을 남겨주고, 나머지 재산은 더 유익한 곳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웨슬리는 본다.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에 기초하여 웨슬리는 돈을 지혜로운 청지기 입장에서 잘 활용하라고 권한다. 돈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는데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음식과 의복과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돕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 수 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를 도움의 도구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lending-stock)을 모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칼빈이 만들었던 난민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다.

화폐가 가지는 자본의 성격을 칼빈과 웨슬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갔다.

5. 국가기능

루터는 인간은 죄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본다.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데 악마는 집주인이고, 세상은 그 부인이라고 루터는 말한다. 세상은 악마들의 소굴 이므로,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의 법과 통치자와 사형수가 존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Luther, 1883: 577)

특히 상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어둠 속에 거하려 한다. 독점을 금지시키고,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제후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 “제후들과 군주들도 자신들의 의무를 완수하려면 그것을(독점) 중단시키고 처벌해야 한다(커어, 1991: 246).” 경제가 올바르게 운영되려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인들이 담합을 통하여 시장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개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에 지배받는 상거래 행위들을 억제시킬 능력이 없고, 이를 공동체나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루터는 빈곤자들을 돌보는 복지 제도를 1522년 비텐베르그(Wittenberg)에서 운영하였고, 필요한 기금은 교회에서 모금되었다.

칼빈 역시 공동체와 국가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현실적으로 죄인들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만한 공동체를 위한 국가개입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죄악이 지배하면서 경제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독점과 사치가 난무하면서, 돈과 재화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개인이 재화를 소유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유대인들이 희년제도를 활용하여 소유로 인한 사회적 압박을 제거하는 제도를 가진 것을 칼빈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돈과 재화의 활용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개인의 유익에 앞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돈과 재화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개인의 뜻 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칼빈은 경제의 변형을 위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국가의 경제정책들을 실행하였다. 대표적인 국가 정책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네바 도시는 “사치금지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행위를 금지하였다. 1558년에는 사치세를 도입하였다(Graham, 1971: 110). 이는 빈민정책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부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이다. 카드 게임이나 다른 도박 게임들 역시 금지되었다. 시민들의 절제된 삶을 도시는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둘째는 이자를 정당화시켰지만, 과도한 이자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1547년 이자의 상한 수준을 년 5%로 정했다. 10년 이후인 1557년에는 이자를 년 6.67%로 인상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20% 수준의 실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빈의 이자정책은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었다.²⁾ 칼빈은 공공은행 설립을 주도하였고, 그가 죽은 3년 후인 1567년 제네바 도시는 처음으로 공공은행을 열었다. 그러나 시장금리를 정부가 고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는 공공은행의 이자

율이 오히려 시장금리를 상회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로 정부는 물가나 임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간섭하였다. 예로, 노동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요일 이외의 각종 공휴일을 금지하였다. 또한 하루의 최대 임금을 정부가 고정시켰다.

넷째로 사회정책을 실행하였다. 제네바 시는 실제로 빈곤문제 해결을 제도화시켜갔다. 가난한자를 돕는 빈민구제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였고, 필요한 재원은 도시 예산과 기부금등으로 조달하였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다. 병원은 여행자를 위한 것이나, 약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성경에 기초한 빈민정책으로 인하여 제네바 도시에는 특히 프랑스 지방에서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어 왔다. 프랑스는 구교를 옹호하면서 신교도들을 핍박했고, 이를 피하여 많은 프랑스 신교도들이 제네바로 이주해 왔다. 칼빈은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난민기금(Bourse francaise)을 제도화하고, 난민의 정착을 도와주었다(Olson, 1989: 11). 필요한 재원은 이미 정착한 외국인들이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기부금 형태로 모아졌다. 기금운영은 주로 집사들이 담당하였고, 구체적으로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자재들을 제공해주었고, 필요한 경우 창업자금도 대출해 주었다. 이 난민기금 모델은 제네바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금의 수혜자들도 난민에서 점점 빈곤자와 약자들도 확대되면서 현대적 사회복지기구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시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모금되고, 운영된 이 난민기금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제네바 도시의 난민기금은 하나님의 선물을 각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진정한 청지기과 공동체의 삶을 보여준 것이었다.

칼빈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는 당시 유럽사회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제네바 도시로 이주를 희망하였고, 인구증가는 도시문제로 부각되었다. 교회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다(Graham, 1971: 106).

웨슬리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유럽대륙과 달리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국가가 앞장 서기 보다는 개인 활동이 중심이된 사회를 구축해 갔다. 당시 토지개혁문제, 조세문제, 노동시간, 임금문제 등 많은 경제문제들이 논의되었지만,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피하고,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가 회복 것을 기대했다.

구제 활동에서도 국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앞장서서 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라는 웨슬리의 권고는 저축한 돈을 이웃을 위하여 적당하게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돈은 먼저 자신의 가게의 수요를 위하여 지출되고, 다음에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남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져야 한다. 가능한 많은 것을 주라는 명제는 쓰고 남는 것을 주라는 것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지출하라는 의미이다. 남에게 베푸는 는 것은 돈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이를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결국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주는 것이나 자신이 쓰는 것이나 주님의 관

2) 칼빈의 이자정책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곳에서도 적정 이자수준을 8.5% 정했다.

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자신과 이웃과 사회와의 긍정적 관계회복은 도덕성의 회복을 가져오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웨슬리는 각자가 올바른 윤리와 경제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회는 회복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그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선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루터나 칼빈은 국가활동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웨슬리는 개개인의 올바른 신앙심과 경제윤리가 회복될 경우 국가 간섭 없이도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고,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루터와 칼빈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웨슬리는 인간이 스스로 성화되어가면서 완벽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표 1)

경제윤리 비교



	루터,	칼빈,	웨슬리
공 통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행위는 하나님의 계명 이웃사랑 실천 2. 노동은 신성하고, 직업은 소명이다. 3. 물질 교류는 영적 교류를 동반 (영적 타락은 물질관계의 타락) 4. 유대적 관점의 수용 (현세에서의 적극적 삶,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 		
차 이 점	하나님과 의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과 관계는 개인적 기도로만 가능 - 타락한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거래) 관계 속에 하나님관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상황 변화 속에 하나님의 임재 존재 - 회복 가능한 세상
재 물 관	재 물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이 가치창출 불가능 - 돈은 행복과 무관 - 돈은 악하다 - 은행, 이자 거부 (외상거래 부도덕) - 금욕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이 가치 창출 가능 -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 - 돈은 중립적 - 은행, 이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의 가치창출 - 돈은 행복을 줌 - 돈은 중립적 - 은행, 이자 인정 - 실용주의
윤 리 관	윤 리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가 도덕성 평가기준 - 국가필요: 인간 악 억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영향이 도덕성 평가기준 - 국가필요: 긍정적 사회적 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의 이득과 손실 비교로 도덕성 평가 - 국가 불필요: 개인의 완벽성 추구 가능
경 제 체 제	경 제 체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사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III. 경제윤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 사람의 경제윤리를 비교한 결과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경제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행위이다.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성실하게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곧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이다.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 출발점이 곧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업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도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막스 베버도 강조하면서, 직업의 소명의식을 청교도 정신의 핵심 가치관으로 언급하고 있다(Weber, 2006: 61).

경제행위는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윤리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가 곧 분업의 결과이고, 시장 교환 행위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곧 그 만큼 이웃의 필요를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물질 교류와 영적 교류는 결합되어 있다.

물질의 교류가 물질의 교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적 교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물질교류와 영적교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물질교류는 활발한 영적 교류와 함께 한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이 세상이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타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풍요로움 자체는 선하지만, 그로 인하여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서, 물리적 사건과 영적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결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인이 영적으로 강건해야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맘모니즘을 경계하고 있다. 돈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다가 예수를 판 것 역시 돈의 유혹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사람 모두 경제행위를 영적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악한 경제행위는 타락한 영혼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윤리의 회복은 영적 회복이 동반되어야 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커 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유대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 사상은 이원론적으로 본질과 현상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히브리 사상은 본질과 현상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세계를 신앙세계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와 신앙세계를 하나의 혼합체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피해서 수도사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이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며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고, 땅을 일구고, 시민의 직무를 수행하고, 우리 동료에게 선한 의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Kerr, 1943: 172)”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들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유대인의 회년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소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로 보고 있다. 회년제도는 재화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소유권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웨슬리는 불의한 재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선 뿐만 아니라,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본다. 즉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악을 악으로 보고 기피하기 보다는 그 악을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Seymour, 1982: 92). 따라서 돈이 악하더라도 이를 선으로 바꾸어 활용하고, 선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선함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 웨슬리는 이러한 유대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누어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적극적 경제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의 경제관은 세 사람이 경제윤리를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세 사람의 경제윤리를 세부적으로 살펴 볼 때에 세 가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루터는 성령 충만과 계시를 구분하고 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인간 안에 내주하면서, 인간을 성령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충만할 때에 자신의 뜻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이룬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오직 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과 악 간의 선택 문제로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경제윤리가 회복되려면 인간은 우선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계시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적 삶이다. 계시에 의존하는 삶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공간을 갖고 있으며, 계시는 자신의 뜻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도 임하게 된다. 루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오로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데 있다고 본다. 계시를 이성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에 따르면 경제윤리의 완벽한 회복은 인간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

칼빈과 웨슬리는 성령 충만과 계시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칼빈은 시장에서 인간과 인간이 물건을 서로 교류하면서 영적 교류도 가능하고, 이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계시적으로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골방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경제행위를 통하여도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행위를 통하여 영적 회복은 불가능하고, 오직 회복된 영적 상태에서만 경제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루터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또한 칼빈은 올바른 경제행위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보지만, 루터는 풍요로움 그 자체가 올바른 경제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품을 교류하는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에는 인간의 결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높다고 하여서 이에 대한 간섭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시장가격을 만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고 한다. 이는 높은 시장가격이나 높은 이자수준을 국가가 통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루터나 칼빈의 견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웨슬리의 관점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루터는 오로지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칼빈은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교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경제활동 속에 충만히 거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이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떠한 형태나 계기를 통하여 경험한다고 본다.

둘째, 재물관이 서로 다르다.

루터는 모든 재물과 가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본다. 인간은 부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다. 욕구를 억제하고, 금욕주의를 통한 경건한 삶을 강조한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심대상이 아니고, 가장 부유하고 좋은 재물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온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일을 하려면 땀과 수고를 해야 하고, 일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화를 캐는 작업이다. 인간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인위적 행위로 악할 수 있다. 특히 돈이 돈을 만드는 것을 악한 행위로 보고, 은행이 돈을 보증으로 하여 새로운 돈을 만드는 것을 부도덕한 것으로 본다. 돈은 물물교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교환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을 받아들인 칼 마르크스는, 돈이 돈을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주장한다.

칼빈과 웨슬리는 재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보고, 풍요로움을 위한 경제행위를 선한 행동으로 인식한다.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경건한 삶이 아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루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행복 제일주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웨슬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고, 행복 추구를 선한 행위로 인정한다. 칼빈과 웨슬리는 돈을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돈이 가지는 가치 창출의 성격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은행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칼빈과 웨슬리는 부를 창출하고, 축적해가는 경제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행위로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건설에 필요한 경제윤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경제활동에 대한 윤리관이 서로 다르다.

루터는 착취하는 재물로 교회를 10개 건설하는 것 보다는 정당한 재물로 1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리적 행위는 결과 보다는 그 동기와 과정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백만장자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윤리적 일을 한다고 해도 동기가 나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하는 도덕, 충절, 애국, 효도, 사랑, 용기, 관용, 자유 등 모든 것들은 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선하다. 경제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욕구에서 나온다면 루터는 모든 행위를 비윤리적으로 본다. 모든 외상거래, 보증거래를 비윤리적으로 보는데, 이는 그 근원이 상인의 탐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역시 비윤리적이다. 대표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활동을 비윤리적으로 본다.

루터에 따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리를 삶의 편리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다. 따라서 편의주의나

효용측면에서 경제윤리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한편 칼빈과 웨슬리는 경제윤리를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찾으려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지라도 재화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한다면 이를 도덕적으로 평가한다. 칼빈은 사치적 행위나 과도한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낭비할 경우 이를 비윤리적으로 본다. 웨슬리는 상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상인을 부도덕하게 보았다. 그는 재화를 쌓아두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윤리적으로 보았다. 웨슬리는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정태적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더 좋은 미래를 지향하는 동태적 또는 실용적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그는 죄수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애썼고, 그들의 영적 구원뿐 만 아니라, 육적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밀수, 폭력, 술주정 등이 난무하는 마을을 외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갔다(MacArthur, 1936: 126). 웨슬리는 악한 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청지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비윤리적 경제행위를 정죄하고 배제하기 보다는 이를 개선하고,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루터는 윤리적 경제행위와 비윤리적 경제행위를 선형적으로 구분하였지만, 웨슬리는 경제행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웨슬리는 비윤리적 경제행위를 행위 이전에 판단하기 보다는, 경제행위 이후에 나타난 이득과 손실을 서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IV. 결론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경제윤리를 이해하는데도 서로 차이를 두고 있다. 루터는 금욕주의적 생활을 경건한 삶으로 이해했고, 칼빈과 웨슬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다. 따라서 루터는 윤리적 삶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칼빈과 웨슬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상황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경제윤리에서 루터는 윤리적과 비윤리적 행위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다.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즉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강조한 반면, 칼빈과 웨슬리는 경제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려고 했다. 이러한 윤리적 관점의 차이는 철학에서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목적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를 서로 비교한 결과 막스 베버의 주장에 대한 다음 두 가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 건설이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베버의 주장은 실제적으로 그 내용면에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 요소로 더 세분화 되어져야 한다. 세 사람 모두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물질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루터는 인간의 이성을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성으로 구분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성에 기초한 판단력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 이성을 이해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 거듭난 신앙인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성을 알게 되고, 그 이성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방법은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루터는 이를 위하여 기도와 성령 충만을 주문하고 있고, 칼빈은 물질적 교류와 함께 이루어지는 영적 교류에 민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웨슬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죄성을 항상 인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영적 거듭남의 경험을 강조하는 세 사람의 주장을 베버는 실제로 외면하고, 청교도 정신을 부지런함, 정직함, 검소함 등의 표면적 모습들로 단순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도덕적 행위도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이성에만 기초할 경우 악하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정신은 오직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는 청교도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거듭남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도 도덕감정론에서 회심(reformation)을 강조하면서, 경제인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의 가슴속에 거주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mith, 1976: 262).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직관적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 실현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보는 능력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마샬(Marshall)은 상상력(imagination)을 언급하고, 케인즈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직관적 능력인 동물적 영성(animal spirits)³⁾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인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루터, 칼빈, 웨슬리는 주장했지만, 베버는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둘째, 막스 베버는 루터의 직업관을 청교도 정신의 근본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의 경제윤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금욕주의적 주장과 윤리관은 자본주의 사회 보다는 오히려 물물교환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회년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칼빈의 모습 속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공동체의 소유권을 개인의 소유보다 우선시하는 색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청교도 정신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 다양한 경제체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직 자본주의만을 강조하는 베버의 주장은 편협적이고, 루터와 칼빈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경제윤리를 검토한 결과 성경에 기초한 경제윤리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경제윤리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본이 강조되는 정보사회 시대에 교육에 기초한 인위적 정신력과 구분되는 계시적 영성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야성적 혈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본인은 단어의 직역을 통하여서 이성(reason)을 뛰어 넘는 영성(spirits)을 강조하려는 케인즈의 의도를 살리려고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안명준(1998). “칼빈의 성경해석학에 사용된 성령의 조명”. 신앙과 학문 3. 60-69.
- 장남준, 박환덕(1973). 루터. 서울: 대양서적.
- Kerr, Hugh Thomson(1943).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김 영한 번역(1991). 루터신학개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 Bebb, E. Douglas (1950). Wesley: A Man with a Concern. London: Epworth Press.
- Bieler, Andre (Translated by Paul T. Fuhrmann) (1964).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Virginia: John Knox Press.
- Calvin, John(1637).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Geneve: Stoer. 고영민 역(2008). 기독교강요. 서울: 기독교문사.
- Demaray, Donald E. (1989). Listen to Luther. Illinois: Victor Books. 윤종석 옮김(1992). 루터에게 듣는다. 서울: 도시출판 두란노.
- Graham, W. Fred (1971).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Virginia: John Knox Press.
- Gross, Reiner, Kobuch, Manfred, Mueller, Ernst (Ed.) (1983). Martin Luther, 1483-1546; Dokumente seines Lebens und Wirkens. Weimar: Boehlaus.
- Harkness, Georgia (1931).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Holt and Co.
- Hirzel, M. E., Sallmann, M. (Ed.) (2009) John Calvin's Impact on Church and Society, 1509-2009. Cambridge: William B Eerdman Co.
- Hobsbawm, Eric (1975). The Age of Capital. New York: Vintage Books.
- Luther, Martin (1883). Weimarer Ausgabe der Werke Martin Luthers. Weimar: Boehlaus.
- Luther, Martin (1915). Works of Martin Luther. Pennsylvania: A. J. Holman Company.
- MacArthur, Kathleen Walker (1936). The Economic Ethics of John Wesley. New York: The Abindgon Press.
- McGrath, Alister E. (1990). A Life of John Calvin. Oxford: Basil Blackwell.
- Olson, Jeannine E. (1989). Calvin and Social Welfare. London: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 Schoeps, Hans-Joachim (1977). Deutsche Geistesgeschichte der Neuzeit, Bd1. Das Zeitalter der Reformation. Mainz: v. Hase und Koehler Verlag.
- Siegel, Seymour (1982). "A Jewish View of Economic Justice." in: Jones, Donald G.(Ed.) (1989). Business, Religion, and Ethics. Massachusetts: Oelgeschlager, Gunn& Hain, Publishers.
- Smith, Adam (1976).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Oxford: Clarendon Press. 박세일, 민경국 공역(1996).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 Weber, Max (2006). Religion and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Zeitausendeins.
- Wesley, John (1850).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Vol. 1. New York: Lane and Scott.